

하루라는 감각의 지도, 그 위를 항해하는 네 개의 시선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기획전 '그리고, 하루'...11월23일까지

김선우·정승원·문형태·정성준...회화 언어로 풀어낸 자아·기억·관계·공존의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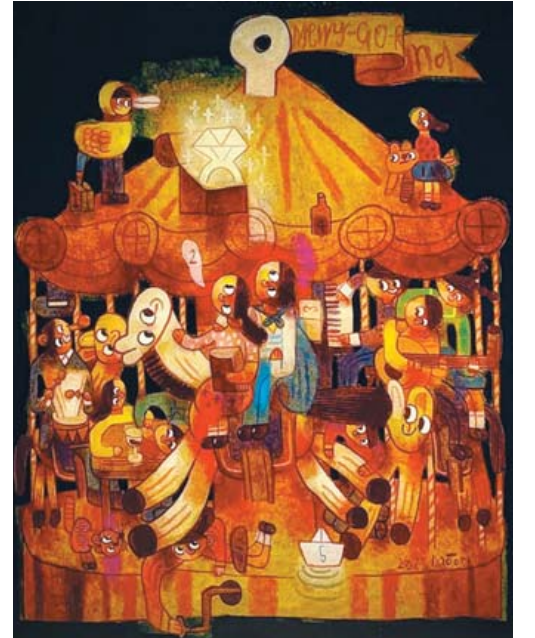
정성준작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법'



정승원작 '아쿠아리움 #30'



김선우작 '오아시스를 꿈꾸며'



문형태작 '회전목마'

삶의 방향을 잃은 도도새는 항해를 시작하고, 회색빛 도시에선 동물들이 유쾌한 공존을 꿈꾼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선보이는 현대미술기획전 '그리고, 하루'는 삶의 내면과 외면을 유영하는 네 명의 작가를 통해 개인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지고 겹쳐지는지를 사유하는 예술적 여정이다.

오는 11월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3·4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선우, 정승원, 문형태, 정성준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감성과 조형 언어로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생태라는 키워드를 풀어낸다.

전시는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자아'에서 출발해 '기억'과 '관계'를 지나, '공

존'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따른다. 작가들의 작업은 서로 다른 시선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하루의 감각을 조형적으로 엮어낸다.

김선우의 작업은 현실에 안주하며 날지 못하게 된 도도새의 항해에서 출발한다. 도도새는 정체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은유이자, 동시에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품은 존재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 도도새들이 '사유의 배'를 타고 떠나는 상상적 항해를 통해, 고정된 현실에서 벗어나 내면의 감각을 회복하는 여정을 제시한다. 여기서 '피안(彼岸)'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다시 바라보고 질문하게 만드는 감각의 지점으로 읽힌다. 김선우는 도도새를 이 항해의

동반자로 설정해, 관람자 또한 자신만의 피안을 향한 여정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정승원은 소소한 일상의 단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실크스크린 판화기법을 통해 같은 장면을 색과 질감으로 다양하게 반복하며, 기억이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유동적이고 복수적인 층위를 드러낸다. 화면 속 풍경은 독일 유학 시절의 일상, 가족과 보낸 여름날, 아쿠아리움을 찾았던 경험 등 작가 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관람자에게는 보편적인 감정의 장면으로 다가온다. 반복과 중첩의 방식은 기억이라는 감각의 작동을 섬세하게 시각화하며, 삶 속 잊고 지냈던 온기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문형태는 관계 속 감정의 층위와 양가성을 독

창적인 조형언어로 풀어낸다. 화사한 색채와 감각적인 마티에르 위에 익숙한 상징과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감정의 복합적 풍경을 구성한다. 특히 작가는 감정의 코드를 숫자로 번역해 서사의 구조를 만든다. 1은 자아, 2는 관계, 3은 가족, 4는 사회, 5는 고독을 의미하며, 이는 각자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열린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의 작업은 하나의 회화이자, 관계로 얽힌 삶의 단면을 기록한 감각적 지도처럼 느껴진다.

정성준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동물들을 도시의 주체로 등장시킨다. 이 동물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서로를 위로하며, 인간을 대신해 더 나은 세상을 실천한다. 회색 톤으로 그려진 도시는 생기를 잃은 현실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

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작가는 비극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유머와 따뜻한 상상력을 통해 오늘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그의 유토피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관람자들이 자신의 하루를 새롭게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일상의 찰나, 감정의 잔상으로 스며들다

조선아 개인전, 오는 10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감정의 섬세한 결을 담아낸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10일까지 한국화가 조선아 개인전 '시간을 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깊이 사유해 볼 수 있는 35점 회화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일상 속 익숙한 풍경들을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시간의 흔적을 담아낸다.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 새벽의 투명한 공기, 노을이 번지는 순간 등 겉보기에 비슷한 하루 속에서도 빛과 온도, 공기, 감정은 끊임없이 달라진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의 결에 주목하고 찰나의 감정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흐르는 시간을 화면 위에 정제된 시선으로 기록했다.

분채와 한지 등 한국화의 전통 재료를 사용한 그의 작품은 시간이 머무른 순간의 잔상이 담겨있다. 한지 위 여러 겹의 색을 얹고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감정의 층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 반복의 리듬은 자연의 순환과도 맞닿는다.

은은한 색채는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들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자유로운 붓질은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차분히 아로새기며, 평면 위에 시간의 결을 찬찬히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정서적 자유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의 조각들이 정리되고, 그 흐름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억의 처음'

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작품 속에 스며든 빛과 시간의 온기를 느끼며 그 속에서 잔잔한 여유를 마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애향으로 그려가는 '예향 목표'

조순현 개인전...오는 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특별실

조순현 서양화가가 오는 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1층 특별실에서 '애향(愛郷)으로 그려가는 예향(藝郷)목포'라는 주제로 20회 개인전을 개최한다.

조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이 있다. 봄이면 벚꽃이 골목마다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진 푸른 숲에 매미소리가, 가을이면 노랗고 붉은 단풍이, 겨울이면 눈꽃이 아름다운 마을, 해질 무렵 창가엔 하나, 둘 노란 불꽃이 마을을 포근



'목포 사계(여름)'

긴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풍경을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내고자 목포의 행복한 마을을 담았다"며 전시를 통해 따뜻해지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하게 감싸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마을,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바람은 이야기처럼 부드럽고 사람들은 시처럼 따뜻하게 살아가는 마을, 나의 화폭에 행복한 마을을 담아본다" 전했다.

조 작가는 "목포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이 풍부한 도시로, 그 속에 담긴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풍경을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내고자 목포의 행복한 마을을 담았다"며 전시를 통해 따뜻해지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